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지질학상으로 홍적세에 해당되며, 그 기간에 몇 번의 빙하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빙하시대라고도 한다. 빙하기 때 우리나라의 주변은 해수면이 내려가서 중국대륙과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지형은 대개 1만 년 전에 시작된 충적세에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대동강·한강·금강 상류지역과 석회암이 잘 발달된 평양 부근 및 충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유적이 발견되어 50~6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과도기인 중석기시대(1만 년~7,000년 전)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구석기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뒤에 새로운 주민인 신석기인들이 들어왔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경남 통영군 상노대도의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아래층에서 구석기시대의 전통을 가진 석기들이 출토되고, 또 최근 주암댐과 합천댐에서 중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석기인 잔석기가 발굴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중석기문화가 존재했음이 입증되었다. 이 중석기시대의 설정은 구석기 주민들이 바로 중석기를 걸쳐 신석기 주민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 구석기시대부터 한반도에 계속 살아왔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구석기인들은 동굴과 강가에서 생활하였다. 동굴유적은 주로 석회암 동굴지대에서 나타난다. 이는 추위를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고, 짐승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동굴의 입구는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대체로 동향이나 남향이고 물이 가까운 곳에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동굴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순군 백아산 일대와 장성군 노령산맥 주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수면이 낮았을 당시 하천침식이 심하게 일어나 곳곳에 형성된 강 근처의 하안단구는 구석기인들에게 중요한 집터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곳에 형성된 유적 중 곡성 입면 제월리·송정리, 옥과면 주산리 등 섬진강변과 주암댐지역인 송광면 신평리·덕산리·우산리, 화순 사수리 대전 등 보성강 유역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최근 영산강 유역인 광주첨단단지에 속한 광주 산월동에서도 확인되어 전남지역 구석기문화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전남지역의 구석기 유적은 지금까지 동부지역에서만 발굴조사되었다. 이 유적들은 순천시 북쪽 구릉상, 송광면 신평리·덕산리·우산리, 황전면 죽내리, 보성 죽산리 하죽, 화순 사수리 대전, 곡성 제월리·주산리·송전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순천의 구석기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당동 망북마을 출토 찌개

용당동은 봉화산(표고 355.3m) 북서쪽의 긴 계곡을 끼고 있으며, 망북마을은 서면과 경계지역인 이 계곡 끝의 나즈막한 고갯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계곡은 용당동에서 밋밋한 경사를 이루면서 올라가다가 서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서 심한 경사를 이루며 천변평지로 연결된다. 유물이 수습된 곳은 고갯마루에서 순천공업단지 방향으로 약간 내려간 민가의 밭인데, 표고는 45m 내외이다. 이곳은 봉화산 기슭과 동천변의 야산 사이에 형성된 고갯마루이다. 석기는 한 면이 편평하고 다른 면이 볼록한, 타원형의 냇돌 한쪽에 날을 세운 자갈돌 찌개(안팎날 찌개)이며 날의 전체적 모양은 볼록하고 톱니날이다. 크기는 길이 16.5cm, 너비 12.3cm, 두께 4.6cm, 날 길이 10.6cm이고 무게는 1.46kg이다.

② 송광면 신평리·덕산리 유적

주암댐 수몰지역인 송광면에 있는 이 두 유적은 보성강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하안단구 잔존부가 가장 현저한 발달상을 보이고 있는 구릉에서 이암제(泥岩制) 92점, 석영제 114점 등 206점의 타제석기가 발굴되었다. 이 유적의 연대는 전형적인 세석인석핵(細石刃石核)과 세석인 등으로 보아 후기구석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세석인 기술을 보인 유적이 2만 년 전을 올라가지 못하고 후기구석기 말기의 시베리아 유적의 연대를 비교해 그 상한을 1만 5,000년에서 1만 3,000년 전으로 보고 있다.

③ 송광면 우산리 곡천 유적

주암댐 수몰지역인 우산리 유적에서는 곡천마을 남쪽 산기슭의 밋밋한 경사면의 층적토가 형성된 곳에서 지석묘 발굴조사를 하다가 밀개, 굽개, 망치 및 몸돌 격지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적은 표토층에서 바닥층까지 19개의 층이 나타나며 10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그 문화층은 중석기문화층과 구석기문화층으로 나누어진다. 중석기문화층은 4지층의 9문화층이며 상당부분이 교란되어 있다. 여기서 출토된 석기는 꽃개, 굽개, 찌르개, 뚜르개 등 잔석기(細石器)가 다수이다.

구석기문화층은 크게 6층이다. 석기의 석질은 석영, 규암, 벌돌, 반암, 안산반암 등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 석영계통이며 석기제작에 쓰인 공구 역할을 한 것들이다. 이 구석기문화층은 석질, 수법, 기능 등 여러 면에서 공주 석장리 유적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 연대는 중기구석기의 이른 시기부터 후기구석기 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잔석기 출토로 중석기문화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 최근 황전면 죽내리에서 층위를 이룬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제까지 조사된 구석기 유적은 1만 5,000년 전에서 7,000~8,000년 전 사이의 것으로 후기구석기시대 말경에서 중석기시대에 걸친 유적이다. 중석기시대의 특징인 잔석기의 존재는 구석기와 신석기시대 사이의 공백기를 메워준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나라의 중석기와 구석기문화 연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 구석기인들이 1만 5,000년 전부터 강가에 터전을 잡고 사냥과 채집, 고기잡이로 생활하였음이 밝혀졌다.